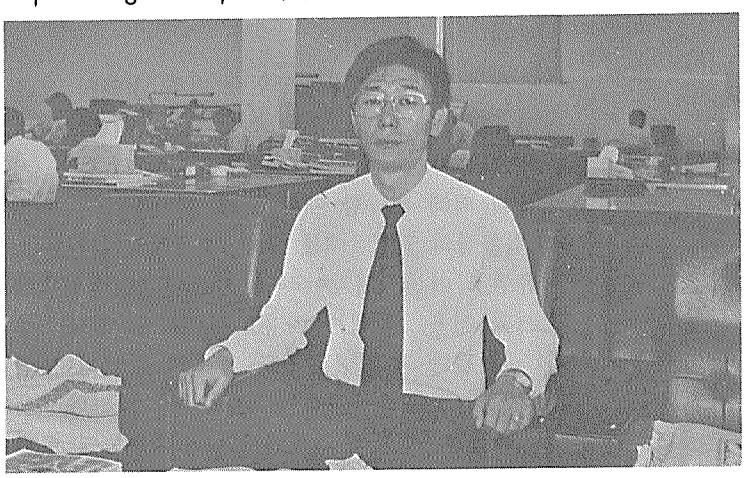
경영자인터뷰 / (주) 대양기전 ——— '91 KES 신제품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자동화의 선두주자로 더 한층 노력을…

구 영 숙 사장



● 약력 : 1953년생, 울산공대 전자공학과 졸

'91 KES 신제품 경진 대회에서 산업부문 최우수상 수상 소감은?

우리나라 산업이 가야할 방향은 좋은 품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원가절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평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전자산업이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경영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쳐 온 것은 잘 알려져 온 사실입니다만 특별한 소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소 우리는 공장자동화 실현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동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공장자동화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터에 우리 대양기전의 노력으로 기술력을 높이 평가 받는 한 계기로 받아 들여집니다.

저희들이 6년전 설립 당시만 해도 In-Circuit Tester, SMD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6년동안의 피나는 노력이 이러한 영광을 안게 된 것에 커다란 기쁨과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산업여건을 타고 같이 성장해 왔는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자동화의 선두주자로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 대양기전의 설립 동기는?

좋은품질과 국제경쟁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지요.

'86년 당시만 해도 국제경쟁력에 대한 감각이 오늘처럼 그렇게 예민한 상태가 아니었고 In-Circuit Tester의 적용률도 극히 낮아습니다. 물론 SMD는 초기 적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가격과 품질을 생각했을 때 공장자동화산업에 투자를 하는것이 필연적인 산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 대양기전의 주력 산업분야는?

자동화기기 즉 In-Circuit Tester라든가 Chip Mounter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기기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산화를 해서 수입대체효과를 얻을수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큰 자부심을 갖을 수 있게 된 거죠.

국내에 In-Circuit Tester 시장이 뚜렷하게 어느정도라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연간 150대 정도의 판매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을 생각하면 1개당 3만불 200대면 600만불이 수입비용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수상하게 된 제품의 국산화 성공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저희들은 이러한 자동화기기의 국산화를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In-Circuit Tester 에 국한하지 않고 Chip Mounter도 곧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한 SMD 주변장치도 더 좋은제품으로 개발해서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것입니다.

현재 저희 연간 매출비중은 내수가 50% 수출이 50% 비중을 가지고 있고, 매출액으로 본다면 내수가 40억 수출이 4~500만불 됩니다.

어쨌든 저희 대양기전은 공장자동화에 여러분야가 있지만, 다양화를 기하기 보다는 In-Circuit Tester에 그리고 Chip Mounter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User가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귀사의 사업전략은?

우선 저는 1등이 되길 원합니다.

In-Circuit Tester에서 상공부장관상을 수상받게 됐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SMD라든가 Chip Mounter에도 아직 할일이 많이 있어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미·일본 등 선진국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분야가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우리나름대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어야 할것입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받아서 모방하기에 급급하지 않고, 한국적 실정에 맞는 자동화 장비에 기술력을 가미해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에도 크게 한 몫을 할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의욕만 가지고 되는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만들더라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발로로 In-Circuit Tester의 측정 System을 16Bit화 하는데 성공을 한것이고, Off-Line Soft의 개발도 완료해서 상품화에 착수 했습니다.

또한 Functim Test의 기능을 추가하는 개발도 진행중에 있어요.

이번에 전시되는 In-Line 혹은 Full-Line System으로 쉽게 변환할수 있으므로 User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더욱 기대 됩니다.

경영철학은?

시야는 넓게 보되 작은일에 충실해야겠다는 것입니다.

In-Circuit Tester 만큼은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속의 대양기전이 될것입니다.

어려웠던 4~5년간의 노사관계를 또한 재정립하고 함께 목적달성의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 힘껏 달릴것입니다.

5,000불 소득의 국민이 2만불 수준의 국민처럼 산다는 비난을 끝내고 허구에서 벗어나 이전으로 돌아가 1000불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갖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개발 실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라고 보지만 대양기전의 연구진도 인력과 기술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애로는 국가의 연구기관이나 학교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 매출액의 약 20%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15명의 연구원들이 In-Circuit Tester의 국산화에서 In Line System까지 User가 만족하는 제품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SMD에 대한 부분적인 국산화도 완료했습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은?

In-Circuit Tester의 16Bit화 Off-Line soft. 간이 In-Line System. Full In-Line System. Function Test의 기능 추가 등을 Version UP 시켜 나가면서 In-Circuit Tester하면 대양기전을 상기할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국내의 대명사격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SMD 사업에 대해서는 Auto Loader, Buffer Conveyor. Unloader를 포함, 일부 Feeder까지 개발을 완료했으며 아직 국산화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SMD 방식으로 도입, 점차 국산화율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업계(협력기관)의 건의사항은?

업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 겠지만 역으로 현재의 여러 지원체제에 대하여 업체가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미비한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양기전의 경우는 정부나 기타 중소기업의 지원단체로 부터 오히려 많은 고무와 격려를 해 주어서 고마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산학 협동 연구에 대한 견해는?

구체적인 면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여건상 고급 기술인력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봅니다. 연구기관이나 학교에서는 현장의 응용력 제고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진흥이라는 차원에서의 정책 내지는 지원 방법을 양자 모두 진지하게 검토하며 점차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